광주일보-뉴질랜드문화교육원 뉴질랜드 어학연수

올 겨울방학을 앞두고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한국학생들을 한데 모아놓고 외국인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이른바 '해외과외형'이다. 이때문에 뉴질랜드에서 현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며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 학급 4명씩 정규수업

생생한 영어교육

외국인 친구와 홈스테이

글로벌 문화체험

뉴질랜드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직접 수업을 하면서 어학실력을 키우고, 문화체험도 하는 알찬 내용의 뉴질랜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초등 고학년·중학생 대상 내년 1월30일~2월26일 4주간

광주일보가 올 겨울방학을 맞아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뉴질랜드문화교육원(NZLES)와 제휴, 초등 고학년(3~4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월30일부터 2월26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연수생들이 매일 뉴질랜드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며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2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해외 어학원에서 한국학생들만을 모아 교육시키는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한 클래스(class)에 한국학생을 4명 이내로 배치해 자칫 한국학생끼리만 어울려 연수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연수기간 동안 현지 학생들의 집에서 매일 숙식하는 홈스테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와 실용 언어를 익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이번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안전문제에도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지 학교 교사와 현지 교육원 직원, 홈스테이 부모의 3중 관리시스템을 구축, 24시간 연수생을 보호한다.

이밖에도 현장체험과 야외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다음은 연수프로그램과 연수생 관리시스템 그리고 연수 학교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 생활 및 체험활동**=이번 연수는 크게 정규수업,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 1박2일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반편성이 이뤄진다. 연수 첫 번째부터 정규수업에 참여하며, 비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온 학생들을 위해 실시하는 영어집중교육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교육을 갖는다.

ESOL 수업은 정규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정규수업을 마친 후 오후 3시부터는 1~2주차에는 영어보충, 3주차엔 영어영상편지 쓰기 그리고 4주차엔 영상보고 따라하기 수업 등을 갖는다.

매주 토요일엔 오클랜드 박물관·오클랜드 대학 견학과 농장체험 시간도 갖는다.

◇**홈스테이 및 연수생 관리**=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도록 뉴질랜드 현지인 가정을 최대한 선별해 추천하며, 한 가정에 한국연수생 2명을 배정한다. 또 홈스테이 는 대부분 연수학교 학생들의 집에서 이뤄져,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홈스테이를 관리하는 전담선생님이 주 1회 연수생 가정을 방문해 생활을 체크하며, 매일 홈스테이 부모를 직접 만나 현지생활을 점검한다.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정보는 출국 전 결정되는데로 가정으로 통보된다. 등·하교 때 홈스테이 부모가 동행하거나 안내한다. 학교측과 비상연락망을 갖춰 24시간 연수생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학교**

스텐모어베이 초등학교=많은 유학생 유치 경험으로 차별화된 ESOL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를 4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 팀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면학 분위기가 높다. 특히 IT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학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와 문서들이 DVD화 되어 발매되며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황가파라오아 중고등학교=넓은 공원 옆에 위치한 학교로 친환경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학생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특성화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예능교육으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학교등급은 9등급이다. 문의 062-220-0641

/서승원 선임기자 swseo@kwangju.co.kr

"연수생 안전 3중관리…자녀들 생활 한국 부모들에 매일 이메일 전송"

우태기 뉴질랜드문화교육원장

"뉴질랜드 어학연수의 가장 큰 특징은 연수학교 한 반에 한국학생을 2~3명만 배정하는 것입니다. 5명 이상의 한국학생들이 한 반에 배정되면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경우가 잦아 어학연수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채 귀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뉴질랜드 단기어학연수 홍보차 최근 한국에 온 우태기(36) 뉴질랜드 문화교육원(NZLES) 원장이 12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연수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밝혔다.

우 원장은 "현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철저한 연수생 관리를 통해 유익하고 안전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면서 "외국에서 한국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 영어강의를 하는 기존의 '과외형' 연수가 아닌 현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뉴질랜드의 선진 교육문화를 접하고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장점은 철저한 연수생 안전관리이다.

우 원장은 "학교교사·NZLES 직원·홈스테이 부모의 3중 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연수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에 전념하고 있다" 면서 "연수생 부모들에게 매일 이 메일로 자녀들의 생활을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원장은 교육원을 11년간 운영해오면서 한국학생 연수를 실시했지만 단 1건의 사건·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학교는 학부모 학력·연봉·참여도 등을 반영해 최저 1등급에서 최고 10등급으로 나뉘어진다고 설명한 우 원장은 "이번 연수 학교는 8~10등급으로 면학 분위기가 좋은 뉴질랜드 최고 수준의 학교다"고 설명했다.

우 원장은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통해 연수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 미래에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데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생생한 교육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원 선임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달 19일 제1회 광주·전남 초·중등 영어학력 평가

제트·토익 브릿지 시험 영어실력 인증 받으세요

"넌 이번에 몇등급이니?"

최근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대화다.

자신의 영어실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습계획을 세우기 위해 주니어 영어능력 인증시험을 보는 초·중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증시험인 제트(JET·Junior English Test), 토익브릿지(TOEIC Bridge)를 비롯 펠트주니어(PELT Jr), 토셀(TOSEL)까지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 JET와 TOEIC Bridge시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광주일보사와 한국 TOEIC 위원회 주최로 오는 12월19일 시행되는 '제1회 광주·전남 초·중등 영어학력 평가'는 JET와 TOEIC Bridge 인증시험이다. 두 시험 모두 20년 이상 어학테스트 운영역량을 지닌 YBM/Si-sa와 한국TOEIC 위원회가 총괄한다는 것만으로 다른 인증시험과 차별화되어 있다.

◇**주니어 인증시험의 강자**=YBM/Si-sa가 개발한 JET는 한국 TOEIC위원회가 주관·시행하고. 한국영어교육학회(KATE)가 공인 인증한 초등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일본에 로얄티를 받고 수출한 시험이기도 하다. JET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향후 상위 시험인 TOEIC Bridge, TOEIC, TOEIC Speaking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수준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초등학교와 다수의 학원 등에서 교내학력평가, 레벨테스트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다. 영광, 함평군청 등 지자체 경시대회 및 각종 영어캠프선발자료로도 활용된다.

JET는 초등학생들의 영어능력을 가장 낮은 단계인 6등급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1등급까지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JET 시험은 학교생활, 캠핑, 생일 파티 등 초등학생들에게 친근한 상황을 소재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응시료는 2만2000원.

각 등급 합격자에게는 합격 인증서가 수여된다. 응시자의 영어능력을 영역별로 자세히 분석하고 전체 수험생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적 분석표도 제공되어 객관적인 실력을 점검하기에 좋다.

◇전세계 35개국 시행=TOEIC Bridge는 TOEIC, TOEFL, SAT 등을 출제하고 있는 세계적인 어학평가기관인 미국 ETS에서 개발한 국제표준 어학능력 평가시험이다. 지난 2001년부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전세계 3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토익 브릿지는 토익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 초·중급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비즈니스 실용영어 능력을 측정하고자 구성된 토익에 비해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억양, 발음, 시제, 연음 등을 정확히 듣고 말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듣기 능력 ▲문장을 읽고 전체적인 의미와 요점을 파악하는 읽기 능력 ▲쓰임을 이해하고 용법을 파악하는 문법 능력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구의 뜻을 파악하는 어휘 능력 ▲영어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언어 기능 능력의 5가지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응시료는 2만9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220-0555

JET이나 TOEIC Bridge 등의 주니어 영어능력 인증시험은 실질적인 영어실력을 가늠할 수 있고, 학습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